

“개혁의 과제, 중흥도약대 삼겠다”

월주스님 「조계종 중무계획」 발표 6월내 대사면 표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개혁의 기간동안 제각기하게 정계란은 69명과 그 전에 정계 받은 10명등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오는 6월안으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교계 내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상반기 중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할 주지 및 총무원의 재임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상황을 기록 인사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인사사고에 의해 주지가 임명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조계종의 중무행정의 기초로서 △수행·교육·전법 작중 진작 △개혁의 계승과 발전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불교중흥의 초석 수립 △불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확대 △민족종교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21세기 문명사회를 선도하는 불교정신 구현 등 7가지를 밝히고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완 △수도·교육·포교·역경사업 적극 추진 △깨달음

- 주요 중무계획
- 중책 지문위원회 구성
 - 신형혁신운동 전개
 - 종단 상설교육장 설치
 - 광복 50년기념 통일사업
 - 주지 인사사고재 시행
 - 월간「설법교안」발행
 - 환경 인권 봉사운동 강화
 - 신협설립, 수의사업전개

의 사회화 운동 추진 △재정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 등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완에 대해서는 △종단 법령집과 해설 자료집 배포 및 종원종부 교육(주요사찰 사무장 대상) △고시 위원회법, 법제법등 종합과 중앙신도회 설치형, 군승준칙등 종령제정 개정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찰의 예산 결산서 제출, 분담금 납부기한 엄수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이어서 “역대 총

무원장 중앙총회의장 각기관 주요 소임자 등으로 종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종책 협의와 자문을 구하고 중무행정에 활용토록 하겠다”면서 “문화재 관리·도덕성 회복·복지사업·환경·사회정의·통일·불교와 21세기 등 각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 자문위원회를 구성 종책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월주 총무원장은 “21세기 인류문명의 전환기를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전망하며 포교방략과 목표, 10년간 사업계획등을 담은 청사진 작성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오는 5월부터 ‘설법교안(가칭)’을 발행 전국사찰에 제작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성도절을 기점으로 발족인문 등으로 확대시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도덕성 회복, 환경, 인권, 사

회봉사등을 펼치겠다”며 불교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남골제도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복50주년을 맞아 오는 광복절을 즈음에 남북불교지도자대회를 관동점(또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개최하고 통일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등을 제시했다.

월주총무원장은 이밖에도 재정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사설사업 및 법인체 실태 파악과 등록 유도 △주요사찰 재정실태 파악 및 종단목적사업에의 재정 확충 △종단소유 토지의 전산화 및 땅값·유류 재산 추심 △타종단 점유 조계종 사찰재산 해결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사업부 신설에 따라 △불자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보험·관광·생수·불구제작 등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육장 건설, 기초선원 설립 △중앙승가대 이전 및 정규대학 인가를 얻기 위한 시설 완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신형혁신운동으로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재적사찰 갖기 △신도오계발기 △신도회 가입 등 6가지 실천목표를 전개로 했으며 재가단체와 조직을 망라한 전국신도 조직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주 총무원장은 “21세기 인류문명의 전환기를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전망하며 포교방략과 목표, 10년간 사업계획등을 담은 청사진 작성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오는 5월부터 ‘설법교안(가칭)’을 발행 전국사찰에 제작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성도절을 기점으로 발족인문 등으로 확대시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도덕성 회복, 환경, 인권, 사

회봉사등을 펼치겠다”며 불교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남골제도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복50주년을 맞아 오는 광복절을 즈음에 남북불교지도자대회를 관동점(또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개최하고 통일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등을 제시했다.



“깨달음의 기쁜 소식 온누리 덮었네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한 날인 8일 성도절을 맞아 각 종단과 사임은 일제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로 조계종에서는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는 등 성도절의 의미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서울 진관사 어린이회가 은평경찰서 대강당에서 성도절을 주제로 소년소녀가장들이 연극공연을 펼치는 모습.

한·태 국제불교대회

2월15일부터 방콕서 세미나등 개최

제1차 한·태 국제불교대회가 오는 2월15일부터 2박3일간 태국 방콕 부타본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한·태 불교협회(회장 법장, 수석사무처장)가 주최하고 한 태 불교협회 태국측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최와 더불어 북

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법장 스님은 “태국에는 6천여 개국 교인이 있으나 영주권 문제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국가인 태국과의 교류를 통해 교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승려 및 재가불자의 교육 및 유학 교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태 국제불교대회와 성지 순례 법회 동행지는 (02)725-1424로 연락하면 된다.

구미 산산 통합 축하법회

구미사암연 주최

구미시와 산산시 군 통합을 축하하는 민간법회가 지난 11일 오후 6시 구미 그랜드호텔에서 성료됐다.

구미사암연주지연합회(회장 법동)가 주최한 이번 법회에는 구미시 및 산산시 사암 주지와 신도회장단 시장 교육감 시 군 의회의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동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과 인맥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시군이 화합해 지역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구미사암연주지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도절을 맞아 지역내 불우 소년소녀가장 20명에 각 1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 격려했다.

17세기 조성학인

대운암 관음보살상

경북 청도를 대운암(주지 현종)관음전에 봉안중인 관세음보살 좌상이 3백 40년전인 조선 효종8년(1655년)의 목조 관세음보살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운암에서는 구암 29일 개금불사중 불상내부에서 북장유물로 능엄경1권, 연화경3권, 다라니경을 비롯 칠보사리 불상조성기가 발견됐다.

청도군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동국대 총장선거

송석구교수등 후보자 7명

오는 15일 실시되는 동국대 제13대 총장 선거 후보자로 민태진교수(58,화학과) 오영근교수(63,불교학과) 김인재교수(61,경제학과) 조희영교수(57,경영학과) 홍치우교수(57,물리학과) 송석구교수(55,철학과) 박준호교수(64,행정학과) 총 7명이 확정 공고됐다.

10일 현재 각후보들은 서울,경주에서 두차례 선거유세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문체부 조사 북한불교 현황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지역의 불교현황이 문화체육부의 조사로 발표되었다(북한지역 종교자료집, 1994.12).

이 자료에 따르면 해방 전까지 북한지역에 있던 사찰 3백60여 곳 중 현존하는 사찰은 경기도 3, 강원도 9, 황해도 12, 평안도 26, 양강도 1, 함경도 10 곳으로 총 61사찰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묘향산 보현사가 북한불교의 중심지였으나 1990년 이후 조선불교도연맹 본부를 평양 광범사에 두면서 현재 광범사가 총본산을 이룬다. 북한불교의 종파는 조계종이며 승려수는 3백명, 신도수는 1만명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승려는 대부분 해방전 신생활등을 하던 대승승이다. 승려의 일

현대불교 지면이 새로워 집니다

현대불교가 새해를 맞아 보다 풍성한 읽을 거리를 마련, 지면이 한층 다양해집니다.

부처님의 지구사랑 3면

부처님은 위대한 환경보존의 실천자였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 해가는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을 전제성 교수가 안내합니다.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3면

혼탁한 사회, 황폐화되어가는 정신문화는 각종 사회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참다운 불자가 행해야 할 실천덕목들이 무엇인지 조계종 총무원과 본사가 선정한 과제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는 신형 캠페인입니다.

한국 사찰 주련(主眷) 6면

고찰에서 만나는 주련. 그 의미에 공감을 갖지않은 불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찰마다 독특한 사체로 장엄돼 있는 주련의 내용과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7년간 전국사찰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일일이 해석을 해 온 권영환 선생과 함께 한국 사찰의 주련의 의미를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아라한들(젊은 학승 탐방) 7면

인재양성은 불교계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전국 16개의 승가대학, 그 진지한 연구도장을 찾아서 내일의 불교를 가꾸는 현장을 지켜 봅니다.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13면

미술의 해를 맞아 불교미술의 좌표를 점검해 봅니다. 전통과 현대화의 이정표는 어떻게 서 있는지, 미래로 이어질 오늘의 불교미술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를 밀도있게 분석해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파악코자 합니다.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13면

우리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들을 초대해 대표작과 함께 신선한 에세이를 독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천태종 1백5개사찰 새 신도회장 임명

천태종(총무원장 진문덕)은 구암 7일부터 실시해오던 동안 거 해제식과 함께 지난 6일 총본산 구암사에서 서울 삼봉사 등 전국 1백5개 사찰의 신도회장을 새로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사찰 해방전 3백60여곳 현재 61곳 승려 3백여명·신도 1만여명 추정

문화유산, 명승고적, 문화유식으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중요 불교문화재로는 해부 5층탑을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19점, 평양종을 비롯한 보물급 문화재 39점, 사적 7점으로 총 65점이 지정되어 있다. 1945년 불교총연맹의 설립으로 구체화된 탄압정책은 계속되어 1946년에는 토지개혁으로

6·25때 파괴된 사찰, 문화재를 복구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1970년대에는 유일사상이 종교사상도 흡수하였고 1980년대에는 묘향산 유적 복원, 고려대장경 번역등의 활동으로 외부적으로 북한불교의 실재를 선전하기도 했다. (박미영 기자)

신임 단장에 김종환법사

전국 교법사단 정기총회, 새해사업 확정

전국교법사단은 지난 5~8일까지 경주 불국사에서 전국 22개교 25명의 교법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과 새 임원을 선출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창단 4주년 기념행사 개최(4월초) △정신선 통일법요집 발간 △종립학교 연합수련회 개최등의 사업과 예산 2천6백만원을 확정했다. 앞으로 전국교법사단이 총무원 교무부에서 포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교교육을 통한

포교에 역점을 둘 것과 청소년 불교포교에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새임원진으로 단장 김종환(금산중) 부단장 교우익(능인고) 박영동(동대부고) 사무총장 김형중(명성여고)등이 선임됐다. **고침** 지난해(12호) 신년축하 광고중 학교법인 승가대학을 학교법인 승가학원으로, 금강경 독송회의 주소를 성북구 성북 2동 131-80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태 국제불교대회

제1차 한·태 국제불교대회가 오는 2월15일부터 2박3일간 태국 방콕 부타본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한·태 불교협회(회장 법장, 수석사무처장)가 주최하고 한 태 불교협회 태국측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최와 더불어 북

금강경(후면) 10폭 병풍

한없이 자애로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운데 으뜸이신 금강경—살아있는 호신병풍
설명절 특별보급으로 가격 부담없이 모실 수 있습니다.

● **발색공단에 그룬사경**

■ **특징**

- 전면: 원력 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壽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화백의 연화도 진품

■ **규격**

- 높이: 5자 8치 (175.8cm)
- 폭: 14자 5치 (439.5cm)
- 재질: 스키목, 양면비단, 스모사 투후지

■ **포교가격**

- ₩ 490,000
- (현금)
- (은행신용카드)

경판데투리에 단을 쌓아 전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닿게 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505 x 255 x 8 (mm)
· 재질: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 480,000**

(글로벌서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벌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 문의처: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